

韓 제약기업, 바이오시밀러 차별화 ‘상호교환성’ 확보로 경쟁력 높인다

삼성에피스 하드리마 절차 돌입
올 10월 첫 바이오비즈 인정 받아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임상 후 진행
2025년까지 11개 제품군 완성 목표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미국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상호교환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의사가 기존 오리지널의 약품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지, 약국에서 대체 처방이 가능한지 등이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터체인저블(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허가한 제품은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에 처방해도 약국에서 대체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때 ‘상호교환성’으로 지정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4일 바이오·제약 업계에 따르면 FDA가 허가한 바이오시밀러는 지난 9월 기준 43개다. 이 가운데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는 총 6개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비즈’는 올해 10월 3일 미국 식품의약국 변경 허가 공문을 통해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가 올해 10월 처음으로 ‘바이오비즈’의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오비즈’는 안과 질환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로, 앞서 지난 2021년 9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의 상호교환성 허가 심사 절차에도 돌입했다고 밝혔다.

‘하드리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판상 건선 등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하드리마의 ‘상호교환성’ 인증 관련 바이오 의약품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고농도 제형 하드리마 간 약동학적

유사성을 확인한 임상 4상 결과도 확보했다.

셀트리온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는 ‘유플라이마’가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연내 마무리하고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0월에는 80mg/0.8mL와 20mg/0.2mL 등 용량제형 허가를 추가로 획득해 유플라이마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은 가장 먼저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는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까지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애경산업 ‘바이컬러’ 두번째 팝업 진행

서울 성수 무신사 스튜디오서 운영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뷰티 텐탈 브랜드 ‘바이컬러’가 팝업 매장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관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컬러’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성수에 위치한 무신사 스튜디오 3층에서 ‘바이컬러, 마이 컬러!’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바이컬러는 바이컬러의 팝업 매장을 지난 9월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에서 열린 행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인다.

‘나의 컬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나에게 맞는 색을 찾고 그 색을 매개로 구강 상태에 맞는 구강 관리 제품을 찾는 과정이 펼쳐진다. 물방울 형



오는 14일까지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바이컬러’ 팝업 현장에서 브랜드 모델 한혜진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애경산업

태의 반구형 돌립판, 서랍 등을 활용해 구강 고민에 필요한 제품을 색상별로 소개하고 있다.

또 ‘바이컬러’를 상징하는 세가지 색상인 빨강, 파랑, 노랑으로 꾸며진 공간들은 바이컬러만의 개성과 감성을 나타낸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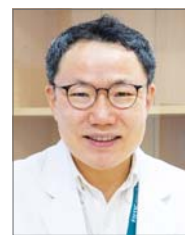
이화의료원 ‘로봇수술’ 갑상선 합병증 줄여

강경호 외과 교수, 우수연제상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로봇 수술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경호 이대서울병원 외과 교수가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경호 교수는 ‘로봇 갑상선 수술을 통한 완전 피막 박리’에 대해서 발표했다.

강경호 교수는 로봇 수술을 응용해



‘완전 피막 박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피막 박리를 갑상선 바깥쪽 표면뿐만 아니라 안쪽 표면에서도 시행하는 것이다. 피막 박리는 갑상선 수술 중 후두 신경과 부갑상선을 보존하는 표준 술식이다. 강경호 교수에 따르면 ‘완전 피막 박리’는 수술 중 갑상선을 강하게 당기지 않아도 된다. 또 부갑상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도 보존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CJ프레시웨이, 스마트팜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기술력 활용 등 계약재배 농민과 상생, 최적 솔루션 만들어

CJ프레시웨이가 스마트팜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나선다.

CJ프레시웨이는 스마트팜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력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 계약재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개인농가가 많은 우리나라 농업환경 특성상 농가의 경작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산물 재배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 등으로 가격변동 폭이 큰

시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 물량을 확보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용수 및 비료와 농약 등을 최소화하는 저투입 농업을 통해 환경부담을 줄임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해부터 노지 스마트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국내산 수요가 많은 마늘, 양파, 감자 등 작물을 ▲제주 대정(마늘) ▲충남 서산(양파) ▲충북 당진 및 경북 의성(감자) 등의 지역농가와 함께 재배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이를 통해 수확한 농산물을 전량 매입해 외식 및 급식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CJ프레시이웨이는 내년부터 노지

스마트팜을 통해 축적한 재배 데이터와 사업 노하우를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 보은군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1월 29일 충북 보은군과 함께 스마트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농민들과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보은군청 관계자를 포함해 보은군 지역농민 등이 참여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설명회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보은군과 함께 경작지 규모 및 재배작물을 확정해 경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푸드, 1만원대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보

신세계푸드가 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즐거운 꽃카’ 케이크를 포함한 1만원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웅제약 ‘간 때문이야’ 주제가곡 MZ 호응

유튜브서 영상 513만 뷰 기록

대웅제약이 ‘간 때문이야’라는 주제를 활용해 MZ세대에게도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를 알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간 때문이야’ 영상이 유튜브에서 513만 뷰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간 때문이야’ 영상에는 원조 ‘우루사맨’ 차두리 축구 국가대표 코치부터 배우 김아영, 방송인 재재, 래퍼 로꼬, 국악인 신유진 등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스토리텔링형, 국악, 랩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된 점이 주효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9월 ‘우루사맨’으로 13년 만에 복귀한 차두리 코치



‘간때문이야’ 국악판 광고의 ‘수궁가’를 응용한 가사가 호평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

와 MZ세대 직장인 연기로 화제가 된 배우 김아영의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또 신세대 국악그룹 ‘리폴라’와 이날 치벤드의 보컬로 활동했던 국악인 신유진이 부른 영상도 추가했다. 특히 판소리 5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를 우루사에 맞게 해석했다. /이청하 기자

CGV,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전 진행

6~19일까지 전국 15개 아트하우스서

CGV가 영화 ‘괴물’의 개봉을 기념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전’을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15개 아트하우스 전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1995년 ‘환상의 빛’으로 데뷔한 이후 인간의

내면과 관계에 집중한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많은 영화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만나는 작품은 최신작 ‘괴물’을 비롯해 ‘어느 가족’,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무도 모른다’, ‘원더풀 라이프’ 등 총 6편이다. /신원선 기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전 6편 영화 포스터. CGV